

『재무관리연구』

신정순(申正淳) 교수님을 추모하며



(1968년 11월 6일~2022년 1월 25일)

얼마 전 우리 재무금융 학계는 그칠 줄 모르는 열정이 넘쳐나던 소중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늘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던 동료였으며 맡은 역할에 언제나 진심이었던 신정순 교수님이 불과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퇴근 무렵이면 살짝 문을 두드리며 “가볍게 저녁 식사나 하시죠”라던 밝은 미소 뒤에는 그가 해결하고자 했던 개인적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알기에 그의 부재는 더욱 안타깝고 깊은 슬픔을 줍니다. 가족에 대한 애뜻한 사랑, 학회의 발전을 바라는 책임감, 세상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정의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신정순 교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신 교수님은 대다수 사람이 꾀꾀 숨기는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한 심성으로 드러내고 활짝 웃던 소년과도 같았던 분이었습니다.

1968년 11월 6일 서울 안암동에서 출생하여 종암초와 대광중을 거쳐, 1987년 대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87학번으로 1994년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신정순 교수님은 1997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MBA, 2002년 미시간 대학(앤아버)에서 통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평소의 털털하고 서민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대학재학 중이던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카투사로 복무한 경험과 오랜 유학 생활로 인해 실상은 뉴요커에 가까웠고 그의 섬세한 여피(Yuppie) 성향은 음식을 대하는 미식가의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 교수님은 본격적인 박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 MBA를 마치고 1998년부터 삼성생명 인사부에서 2000년까지 근무하였고, 2008년에

뉴욕주립대학 버팔로 캠퍼스에서 정기호(Kee H. Chung) 교수님의 지도하에 재무금융(Finance) PhD를 취득하였는데 논문의 제목은 “Market Reactions to the Credit Risk Announcements”입니다. 어설프게나마 제가 요약하면 그 내용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상향(하향)되는 뉴스가 주식과 채권의 유동성 개선(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것입니다. 논문은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증권이 등급변동 뉴스에 더 큰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등급변동보다 watchlist 등급 검토가 더 큰 정보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08년 3월 봄학기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신정순 교수님의 14년간 교수 생활은 강의와 연구 그리고 교내외 봉사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게재한 40편 이상의 연구논문은 연평균 3편이 넘는 것이었고, 이화여대 내에서는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대다수 교수가 부담스러워하는 “이화 여성 고위경영자과정”과 “이화-씨티 글로벌 금융 아카데미”라는 비학위 프로그램의 주임교수를 부임 이후 거의 매년 기꺼이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학회 활동에 있어서 신 교수님은 한국증권학회의 국제학술대회인 CAFM의 행사준비위원으로 수년간 봉사하였고, 한국재무관리학회 학술지인 재무관리연구와 한국금융공학회의 학술지인 금융공학연구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증권학회의 Scopus 등재 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증권학회지가 Scopus 등재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증권학회 감사와 한국재무학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신 교수님은 재무금융 주요 학회인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의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재무금융 관련 학회에 있어서 그의 공헌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신정순 교수님의 연구목록을 살펴보면 그가 동료 및 선후배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다수 실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과 인연을 맺었던 학자들과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그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연구 분야였던 신용등급과 시장 미시구조에서 관심 영역을 확장하여 펀드, 기업지배구조, 사례연구, 내부자거래,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아마도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지적 호기심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신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밝은 웃음과 달리 냉철하게 파고드는 질문과 깊은 사색을 반영한 심각하게 굳은 표정은 언뜻 낯설기는 하지만 학술 세미나 시간이면 쉽게 볼 수 있는 그의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신정순 교수님과 관련되었으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두 가지 일화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학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 교수님의 대학원 석사과정 제자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대학에 외국인 학생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다른 교수들이 논문지도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 교수님은 지도를 원하는 외국인 학생을 모두 제자로 받아주고 함께 경북공을 간다거나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타고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선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한 예로 베트남 학생의 어린 아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가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직접 사유서를 쓰고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일이 생각납니다. 신정순 교수님은 타국에서 고생하는 외국 학생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는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두 번째 일화는 2017년 여름에 MBA 학생들을 인솔하여 일본 도쿄와 홋카이도로 다녀온 스터디 트립에서 보았던 그의 사려 깊은 통찰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수선하고 들뜬 해외 연수 중에서도 신정순 교수님은 한·일 간의 성공과 실패, 전쟁과 성장, 미움과 화해라는 주제의 논의를 깊게 이어갔습니다. 바쁜 일정을 마치고 평온한 분위기의 온천 후에 고구마 소주를 앞에 두고 이어진 일본에 관한 토론에서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여름이 그리운 것은 오오도리 공원의 야경이나 생맥주보다 그가 읊조리듯 내뱉은 외로움의 독백과도 같은 “모두가 맹목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라는 말입니다. 난제에 천착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본성이 그를 다방면의 학구열로 이끌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신정순 교수님은 스포츠를 즐기며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분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중학교 때부터 교내 축구를 주름잡던 스트라이커였고, 선수 못지않은 탁구 실력을 갖추었으며, 프로야구의 거의 모든 선수를 손금처럼 훤히 알고, 자전거를 즐겨 타며, 등산을 즐기는 건강한 중년이었습니다. 다만 술을 지고는 못가도 마시고는 간다는 두주불사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된 것이 아닐까 한탄스럽습니다. 혹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자 하는 말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으로 인해 간혹 오해하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분의 겉껍질을 한 꺼풀만 벗기면 부드럽고 하얀 속살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딸과 대학생 아들에게는 속정 깊은 신 교수님이 늘 자녀들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자랑스러워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제는 정을 나눌 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놀라운 충격으로 신정순 교수님의 비보를 접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의 고민, 일상, 그리고 희망을 접했던 저로서는 더욱 괴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것은 악몽이 아닐까 하고 생각도 해보고 그의 자취를 잊으려고도 해봤지만 제 주변의 거의 모든 환경이 신정순 교수님의 흔적이 닿았던 것이기에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신 교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듯 외로운 인생길이었으며 힘들고 또한 즐거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 교수님과의 크고 작은 추억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정순 교수님의 모습은 따뜻함이 내면에 가득 차 있으나 선뜻 표현에 서툰 그래서 한잔 술을 빌어 호탕하게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며 즐거이 웃음 짓는 그의 얼굴만은 아닐 것입니다. 신정순 교수님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학자만큼의 학문적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학계에 놓고 떠난 작은 벽돌들은 큰 빌딩을 이루는 온갖 부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그를 잊지 않고 또 다른 벽돌을 쌓아서 그의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정순 교수님을 오랜 시간 가깝게 알고 지냈습니다. 그가 언제나 아이처럼 설레며 좋아했던 것은 새로운 장소에서 오랜만에 가지는 지인들과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동료들을 사랑했고 학회의 일원으로 우리에게 헌신이라는 이름의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언제나 웃으면서 문을 열고 들어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풀어 놓던, 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한, 그가 오늘 이 글을 읽고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통찰력이 반짝이는 촌철살인 한마디가 더욱 궁금합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했던 신정순 교수님을 떠나보내면서 이제는 후회와 아쉬움은 접고 그리움만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즐거운 동료이며 좋은 친구였던 신정순 교수님의 평안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변 진 호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황학루송맹호연지광릉)

-李白(이백)-

故人西辭黃鶴樓 (고인 서사황학루)
煙花三月下揚州 (연화삼월하양주)
孤帆遠影碧空盡 (고범원영벽공진)
唯見長江天際流 (유견장강천제류)

〈광릉 가는 맹호연을 보내며〉

-이백-

친구는 서쪽 황학루에 작별을 고하고
안개 끼고 꽃 핀 삼월 양주(揚州)로 내려간다
외로운 배 먼 그림자 푸른 하늘로 사라지고
보이는 건 하늘 끝으로 흐르는 장강뿐

<논 문>

- 신정순, 박정지, “자사주 취득 공시와 내부자거래 관계분석”, 한국증권학회지, 2021.12.
- 최서연, 신정순, “MS-EGARCH 모형을 이용한 가상화폐 변동성의 예측 성과 분석”, 금융공학연구, 2020.06.
- 최서연, 신정순, “GARCH 모형을 적용한 가상화폐 수익률의 변동성 분석”, 재무관리연구, 2019.06.
- 신정순, 김민기, 오동준, 김동석, “Do hedge funds time market tail risk? Evidence from option-implied tail risk”, Journal of Futures Markets, 2019.02.
- 신정순, 변진호, 박경희, “A Holdings Company and its Synergy: Korea Kolmar Cas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for Case Studies, 2018.12.
- 최서연, 신정순, “한국 및 미국 주식시장과 가상화폐의 동조화”, 금융공학연구, 2018.12.
- 신정순, “유럽 사모펀드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유라시아연구, 2018.12.
- 최서연, 신정순, “미국 주식과 가상화폐의 비대칭 변동성과 군집 현상”, 재무관리연구, 2018.12.
- 최서연, 신정순, 임예진, “가상 화폐의 비선형성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8.04.
- 김태규, 신정순, “신용등급과 기업의 투자의사결정”, 한국증권학회지, 2017.09.
- 박경희, 임예진, 신정순, “보험 산업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관련 사례연구”, 유라시아연구, 2017.09.
- 박경희, 박정지, 변진호, 신정순, “LOCK&LOCK은 중국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유라시아연구, 2017.03.
- 신정순, 한영아, “한국 지주회사 설립 절차와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역학 관계에 대한 고찰”, 금융공학연구, 2016.12.
- 최한나, 신정순, “기업분할과 주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6.10.
- 강원, 신정순, “Derivation of Corporate Debt Pricing Model and Its Empirical Implications”,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2016.06.
- 박정지, 신정순, “한국·EU FTA 체결후 무역교류 사례”, 유라시아연구, 2016.06.
- 김태규, 신정순, 임예진, “기업의 투자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 정보비대칭 관점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2016.02.
- 신정순, 임예진, “KOSPI 상장 기업의 스프레드 추정 방법론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5.08.
- 임예진, 우원석, 신정순, “교육기부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경영연구, 2015.02.
- 신정순, 임예진, “교육기부 효과성의 정량적 분석방법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5.01.

신정순, 김태규, “신용등급과 주식수익률”, 재무연구, 2014.08.

신정순, 한영아, 임예진, “펀드시장 성장사 - 사건, 제도,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2014.03.

신정순, 김태규, “내부자거래 초과수익의 결정요인”, 한국증권학회지, 2014.03.

신정순, Nga Nguyen, 임예진, “Culture and Finance”, 재무관리연구, 2014.03.

신정순, 최문섭, 조성순, “국내 폐쇄형 투자펀드 거래에 관한 비대칭정보 분석”, 금융공학연구, 2013.09.

신정순, 김태규, 김인중, “내부자의 거래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3.06.

신정순, 임예진, “How to use financial derivatives wisely - A case study of KIKO”,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2012.08.

신정순, 강형철, 문정훈, Dulal Hossain, “An analysis of agricultural informatization in Korea: the government's role in bridging the digital gap”, Information Development, 2012.05.

신정순, 임예진, 김태규, “자본투자과 대리인비용”,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2.04.

신정순, 변진호, 조성순, “The Value of a Two-Dimensional Value Investment Strategy: Evidence from the Korean Stock Market”,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2012.01.

신정순, 임예진, “키코에 대한 이해: 키코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산업경제 연구, 2011.12.

신정순, 최승두, “주식 수익률 예측 가능성과 국제 주식시장 동조화”, 산업혁신연구, 2011.03.

신정순, 손판도, 김성신, “Security Concentration and Fund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2011.02.

신정순, 손판도, “한국 펀드시장에서의 펀드 매니저의 주식선택능력 성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0.12.

신정순, 손판도, 김성신, “펀드 증권집중도의 결정요인”, 산업경제연구, 2010.12.

신정순, 손판도, 김성신, “일본 주식시장의 조건부변동성과 증거금간의 관계”, 선물연구, 2010.11.

신정순, 오원선, “금융기업 경영진 보수체계에 대한 시사점 및 사례 분석”, 금융안정연구, 2009.12.

신정순, “Effects of Tick Size Change on the Intraday Patterns of Spread and Depth”, 재무관리연구, 2009.12.

신정순, “스프레드 및 주문량의 주중 및 월중효과”, 금융공학연구, 2009.12.

신정순, 양희동, 박민아, “자동차 산업의 서비스 부문 확대에 따른 MIS 활용 사례”, Information

Systems Review, 2009.12.

신정순, “Analysis of Transaction Costs and Inferring Trade Direc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9.08.

신정순, 최승두, “민영화 신규상장 통신기업의 장기 영업 성과”, 금융공학연구, 2008.12.

신정순, “신용등급 주의발표에 따른 신용등급의 추이분석과 시장의 반응”, 경영논총, 2008.06.

<저역서>

Ross의 기업재무관리(변진호, 신정순, 이관영 공역)

<연구보고서>

2019.07~2019.12,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 사내강사양성”

2013.07~2013.12,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효과성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2012.05~2013.04, 한국연구재단(신진), “교육기부의 경제적 가치산정”

2011.05~2012.04, 한국연구재단(인문사회), “문화적 특성이 각국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학회 봉사>

부회장 :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감 사 : 한국증권학회

선거관리위원장 : 한국재무학회

편집위원장 : 한국재무관리학회(재무관리연구)

편집위원장 : 한국금융공학회(금융공학연구)

Scopus 등재 추진위원장 : 한국증권학회(한국증권학회지)